

KBS NEW 프로그램
훈훈한 겨울
예능·교양 버무린 참신한 기획

잠시만 빌리지
동물의사생활
거리의 만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삼청동 외할머니

공익적 가치 시청자 공감대 UP

겨울의 문턱, KBS 새 프로그램 5총사

웃음을 여려도 찬바람이 파고드는 요즘, KBS가 시청자의 마음에 훈훈한 여운과 따뜻한 힐링까지 선사하는 신설 예능 프로그램을 다수 선보였다. 예능과 교양의 장점을 적절히 버무린 다큐 버라이어티부터 대신 살아보기까지 소재와 프로그램 콘셉트도 다양하다. 웃음과 메시지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로 시청자들의 안방극장을 두드린 공영방송 KBS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만나보자.

웃음 속 마음을 울리는 세상 이야기를 전하다

지난 12일 KBS 누리동에선 신설 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렸다. 총 5편의 프로그램, 1TV에서 2편의 새 프로그램이 2TV에선 3편의 새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이날 설명회에 김덕재 제작본부장과 신설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는 개편보다는 수시 조정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거의 두 달마다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왔다.”며 이번 자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제작 책임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웃음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마음에 여운도 함께 남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신설 프로그램의 출발점과 목표를 드러냈다.

‘재미와 의미’ 새로운 틀에 담다

1TV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던 <거리의 만찬>,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2편의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호평 속에 정규 편성됐다. 2TV에는 예능과 교양의 장점을 알맞게 버무린 <삼청동 외할머니>와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 그리고 <잠시만 빌리지>가 신설됐다. 재미와 의미를 다잡는 신선한 포맷으로 다양한 시청자에게 다가가겠다는 제작진의 노력과 고민이 엿보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선 <콘서트 7080> 및 <VJ 특공대> 등 장수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아쉬움과 지적에 답변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도 일종의 생로병사가 있다.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습 일 수는 없다. 프로그램에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한다.”며 설명했다.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KBS에 걸맞은 새로운 활로 개척 의지를 내비쳤다.

★ KBS 2TV 신설 예능 3인방 ★

외국 할머니의 집밥·동물 다큐 제작기·한달 살기 다양한 소재와 신선한 포맷으로 무장하다



세계 각국 할머니의 '집밥'을 만나다 〈삼청동 외할머니〉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에서 정성 어린 집밥 한 끼는 허기진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준다. 집밥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이때 세계 각국에서 온 할머니들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집밥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이 찾아왔다. 2TV 새 예능 〈삼청동 외할머니〉다. 헝가리, 코스타리카, 벨기에, 멕시코, 태국, 프랑스에서 온 6명의 할머니들이 삼청동에 레스토랑을 열어 자신들의 집밥을 선보인다. 다국적 할머니들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음식과 그 만큼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삼청동 외할머니〉가 여는 '먹방' 예능이나 음식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만날 일이 없었을 할머니들이 문화와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훈훈한 케미스트리를 선사한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손맛'이 담긴 특별한 레시피 정보와 각국에서 평생을 살며 느낀 '인생 맛'까지 즐겁게 나눈다. 여기에 개그맨 김영철, 그룹 신화의 앤디, 에릭남, 모모랜드 주이, 스텔라장이 직원으로 합류해 할머니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일한다. 할머니들의 특급 도우미이자 손자·손녀로서 할머니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 그리고 특유의 시너지 역시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과 따스한 감성을 안길 예정이다.

▶ 토요일 밤 10시 50분, 2TV



은밀하고 위대한 예능 다큐 〈동물의 사생활〉

'연예인들이 직접 카메라를 잡고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어떨까?' 그 상상을 실현한 KBS 새 관찰 예능 프로그램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이하 〈동물의 사생활〉)이 베일을 벗었다. 총 8부작으로 기획된 〈동물의 사생활〉은 스타가 다큐 감독이 돼서 장엄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사는 동물의 이야기를 촬영해 미니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첫 촬영팀으로 배우 이하늬와 박진주, 인피니트 성열과 엘이 참여하고 KBS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하영 촬영 감독이 참여해 뛰어난 영상미를 선보인다. 지난 23일 첫 방송에선 바다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혹등고래'를 담기 위해 프렌치 폴리네시아의 타히티 섬으로 떠났다. 그동안 카메라 앞에만 섰던 스타들이 카메라를 들고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동물의 특별한 순간을 담아낸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 여기에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야생 동물들을 찾아 나서는 스타들의 여정과 초보 다큐 PD가 된 그들의 좌충우돌 도전기가 관찰 예능의 재미를 선사한다. 여기에 묵직한 메시지도 놓치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라는 프로그램의 의도에 걸맞게 진정성 있는 감동과 서로 공존하는 길을 전한다. 첫 번째 '혹등고래'를 시작으로 남미로 떠난 두 번째 팀의 '펭귄'까지, 한 편의 다큐멘터리 완성을 목표로 똘똘한 스타들의 도전이 어떤 재미와 의미를 안겨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금요일 저녁 8시 55분, 2TV



머무르는 여행에서 얻는 '소확행' 〈잠시만 빌리지〉

최근 국내든 해외든 한 여행지에 오래도록 체류하는 여행, 이른바 '한 달 살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이 트렌드에 도전한 스타들의 힐링 여행기가 시청자들을 찾는다. 30일 밤 처음 전파를 타는 2TV의 색다른 주거 체험 프로그램 〈잠시만 빌리지〉는 매일 똑같은 집과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한 도시에서 느긋하게 살아보는 현지 거주 프로젝트다. 가수 조정차-정인 부부와 19개월 딸 조은 양이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치고 아나운서 박지윤과 9살 딸 최다인 양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치과 의사 겸 방송인 김형규와 12살 아들 민재 군은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났다. 그야말로 여행 프로그램의 흥수 속에서 〈잠시만 빌리지〉는 조금 더 느리고 가까이 현지인의 생활 스타일을 밀착 경험하고 내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무엇보다 '한 달 살기'를 꿈꾸는 시청자들에게 집 구하기, 단골가게 만들기, 도서관·세탁소와 같은 편의 시설 이용해보기 등 알짜배기 지역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곳에서 잠시 머물러 그 도시의 속살까지 맛보는 〈잠시만 빌리지〉. 생생한 대리만족과 함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의 기쁨을 안방극장까지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금요일 밤 11시 15분, 2TV

팩트체크 K, 끈질긴 K

‘뉴스의 정석’ KBS 기자 DNA를 깨우다!

저/널/리/즘/ 본/질/로/ 돌/아/가/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BS 기자들은 KBS 저널리즘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저널리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꼽았다. 검증 없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들. 그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함’과 ‘집요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팩트체크 K’와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 ‘끈질긴 K’의 기자들을 KBS사보가 만났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진실을 전하다

최근에 정치인들이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 방송을 많이 제작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발언들을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치인의 개인 발언 등이 진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팩트체크’다. ‘팩트체크 K’는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정보’들을 모기 잡듯이 보일 때마다 검증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했다.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증’

팩트체크 기사 아이템으로는 사실적 진실과 같은 ‘팩트’를 다루며 사상이나 의견 등은 검증 대상에서 배제시킨다. 그

리고 그 중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선택한 뒤 법조문이나 판례를 비롯해 검증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검증한다. SNU FactCheck(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센터)와 제휴해 그곳에서 내놓은 팩트체크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팩트체크 K’만의 자체 원칙도 세웠다. 내용을 검증할 때 최소 두 곳 이상에서 소스를 가져와야 하는 것과 당사자의 반론도 반드시 신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편견’을 만드는 가짜뉴스 막아야...

외국도 그렇고, 보통 팩트체크 기사는 정치적 이슈를 다룰 때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방송들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팩트체크 K’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루머 중 난민, 다문화, 종교, 탈원전 등에 대해 20여 건의 팩트체크 기사를 썼다. 특히 임주현 기자가 쓴 “‘제주 여성 번사 사건에 예멘 난민이 관련’...사실일까?”와 “‘강간 놀이’하는 무슬림이 한국 이슬람화를 꿈꾼다” 기사 등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조회수 150만 뷰를 넘기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실 검증 기사의 파급력 커져

디지털 뉴스로 게시된 ‘팩트체크 K’기사가 업로드되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온다. 기사를 업로드하는 동시에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두세 번 다녀온 적도 있고 정정 보도를 해달라는 연락 등이 많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반론 보도를 냈던 적은 없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끈질기고 집요한 ‘팩트체크 K’의 기자들이 투명하고 확실하게 취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엄정한 팩트체크 기초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팩트체크 K’기사가 지금은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올라가고 있지만 보도국 내 경제부, 사회부 등과 연계해 9시 뉴스로 팩트체크 기사 리포트가 나가는 경우도 조금씩 늘고 있다.



시청자 제보 바탕으로 꼼꼼한 취재

‘끈질긴 K’는 제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현장을 꼼꼼히 취재해 이슈의 핵심까지 끈질기게 파고드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본격 추적 리포트로 <뉴스 9>의 새로운 코너다. KBS 통합뉴스룸에는 홈페이지, 전화, SNS 등으로 연간 7~8만 건의 제보가 들어온다. 지난 여름과 가을 태풍 ‘솔릭’, ‘콩레이’ 때는 하루에 1만 건의 제보가 들어온 적도 있었다. 많은 제보가 여러 경로로 들어오다 보니 옥석을 가리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끈질긴 K’는 그런 경우를 막고 양질의 제보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게 됐다.

‘탐사보도’와 같은 듯 다른 ‘끈질긴 K’

탐사보도의 성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끈질긴 K’는 탐사보도보다 가벼운 주제에도 자유롭

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청자 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시청자 친화적인, 생활 밀착형 아이템을 다루기도 쉽다. 그런 면에서 운신의 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청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리포트의 앵커 멘트도 취재기자가 오픈하는 형식으로 대체했다. 첫 리포트는 사회2부에 들어온 제보를 취재해 보도했다. 지금은 사회2부 기획팀에서 주도적으로 ‘끈질긴 K’ 성격에 맞는 아이템을 선별하고 취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합뉴스룸 전체로 확대해 누구든 ‘끈질긴 K’ 아이템을 취재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자와 작가의 협업 시스템 시도

‘끈질긴 K’는 11월 15일(목) 이세연 기자의 “BBQ 회장, 화상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이 첫 리포트였다. 이튿날 BBQ 측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검증하는 리포트로 후속 보도를 했다. BBQ 관련 ‘끈질긴 K’ 리포트가 나간 뒤 BBQ의 갑질을 고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들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이를 검증하고 취재해서 정말 끈질기게 파고드는 속보를 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만간 시사 분야에 밝은 구성 작가도 채용할 예정이다. 기자적인 날카로운 시각에 작가의 감성을 더한다면 아이템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보도 더 충실히 모니터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뉴스9>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는데 기여”

‘끈질긴 K’의 첫 리포트 러닝타임은 7분이었다. 앵커멘트까지 합하면 거의 8분이다. 데일리 메인 뉴스에서 러닝타임 8분짜리 리포트를 튼 건 거의 유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8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근래에 본 리포트 중 최고였다’ 등의 찬사가 있었다. ‘요즘 KBS 뉴스 정말 재미있고 내용이 좋아졌다’는 외부 평가도 여러 경로로 들었다. 반면, ‘뉴스인지 시사 프로그램인지 헷갈린다’, ‘데일리 뉴스 아이템으로는 너무 길다’ 등의 지적과 비판도 있었다. 칭찬과 비판을 예너지 삼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것이 결국 <뉴스9>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도 확신한다.



방송사 최초! KBS 성평등센터

지난 11월 13일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개소식에서 “KBS 구성원들의 의식과 조직문화가 KBS 뉴스와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성평등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또 “KBS 구성원들의 젠더감수성을 높여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장 직속 기구인 KBS 성평등센터는 앞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건 접수 및 처리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직장내 성폭력 바로알기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희롱은 직장 내의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문제로 이를 용인하고 묵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더욱 확산되기도 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직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업무에 잘 복귀할 수 있을지, 가해자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동료·선배로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법정필수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 등)’을 통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 KBS직원이라면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주시하면서 매년 실시되는 법정필수 교육인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해 정확히 성희롱·성비위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건강한 조직과 건강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의 법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말과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성희롱 사건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법령으로 처리하는지,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어떤 구제방법(자율적 고충처리제도, 비사법적 권리구제 등)이 있는지, 성희롱에 대한 주체별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정확히 알고 실천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이런 절차로 처리됩니다.

‘성평등센터’에서는 사건 접수 즉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 필요에 따라서 인사운영부에 징계요구를 하게 되고, 이후 인사위원회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평등센터’는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인권보호를 위해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관련법령, 사내 관련규정과 성희롱에 방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는 최근에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사건 조사 착수 즉시 피신고인을 재택근무 등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성평등센터’는 이와 병행하여 변화된 법령 등을 반영한 규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KBS에 가장 최적화된 매뉴얼 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성평등센터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센터 02-781-2777
메일 sangdam@kbs.co.kr
방문 본관 2층



사건 발생시 이렇게 합시다!

관심자

01 사건 인지단계

- 피해자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사항과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 확인
- 상담 및 사건에 대한 비밀 유지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방안 모색

02 성평등센터(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인계단계

- 성평등센터에서 공식/비공식 절차를 모두 지원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안내
- 피해자의 센터 상담 권유
-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에 협조
-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상황 주시, 필요시 성평등센터에 자문 요청

03 사건종료 후

-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모니터링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유지
- 피해자 피해 회복 및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성희롱 가해자



-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인지
- 자신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
- 조사 진행 중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

제3자, 곧 주변 사람



- 성희롱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
- 성희롱 문제가 제기되면 소문 유포 등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피해자의 대응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방/송/문/화/연/구/소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KBS 생존전략

포스트TV 시대 텔레비전은 Broadcasting에서 Broadband로 개념이 바뀐다. '전송'에서 '스트리밍/VOD'로 '채널'에서 '플랫폼'으로 '시청자'에서 '이용자/프로슈머'로 '장르'에서 '취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포스트TV 시대, 지상파 OTT '개방과 제휴'를 고민하다

제1주제 'OTT&Beyond: 포스트TV 시대의 미디어 삶과 공공성' 발제를 맡은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2015년 87개국 6,600만 명 가입자에서 2018년 190여 개국 1억 4,000만 명 가입자로 늘어난 세계 최대 영상 스트리밍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의 성장세를 설명하며 "미디어 역사에서 기술과 채널은 침투했어도 플랫폼과 생태계가 통째로 침투한 적은 없었다."며 근대의 신미양요나 병인양요처럼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미디어계의 양(洋夷)에 비유했다. 포스트TV 시대 텔레비전은 Broadcasting에서 Broadband로 개념이 바뀐다. '전송'에서 '스트리밍/VOD'로, '채널'에서 '플랫폼'으로, '시청자'에서 '이용자/프로슈머'로, '장르'에서 '취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넷플릭스 콘텐츠 소비의 특징은 '추천'과 '취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여 개의 콘텐츠 유형에서 8만여 개의 개인화된 장르로 확대해 전체 시청의 80%를 추천을 통해 선택한다. 넷플릭스에서 장르란 콘텐츠를 포장하는 방식일 뿐이다.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은 시청자가 예상치 못한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도록 돕기 때문에 그들은 추천 알고리즘을 더욱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몰아보기(Binge Watching)와 정주행(Binge Racing) 역시 몰입과 취향을 내세운 넷플릭스만의 시청패턴으로 자리잡았다.



“지상파 OTT 폐쇄적 전략 대신 글로벌 플랫폼과 협업도 고려해야”

현재 지상파는 동시성과 계획된 흐름을 앞세운 케이블/IPTV와 비동시성과 개인화된 흐름을 앞세운 OTT 사업자 사이에 긴 채 위기를 맞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상파 OTT인 POOQ 역시 빅 콘텐츠를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와 스몰 콘텐츠를 주무기로 하는 국내 사업자 사이에서 고전중이다. 지상파 OTT는 기존 자사 홈페이지와 앱, 콘피아 등의 통합 웹 서비스에서 출발해, 지상파 통합 앱인 POOQ 런칭과 함께 글로벌 OTT 산업의 급성장을 목격했고, 오픈 서비스에 이어 이제는 넷플릭스 따라잡기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사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LGU+ 등과 손잡고 전송경로와 결합상품의 기회를 가졌고, JTBC와 콘텐츠 제휴를 맺었다. <킹덤>, <범인은 바로 너> 등 현지화 콘텐츠 투자까지 나섰다. 공격적으로 현지화를 진행중인 넷플릭스에 맞서 우리끼리 뭉쳐 글로벌 OTT와 경쟁하겠다는 지상파 OTT 연합의 폐쇄적 전략은 아시아에선 일부 통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 등 주류와 손을 잡는 방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포스트TV를 바라보는 지상파의 심경은 복잡하다. 플랫폼과 생태계 침투 수준은 심각하고, 상호작용이 결여된 지상파의 독자적 네트워크와 제작관행은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독자 플랫폼에서 전략적 제휴까지 다중적 접근 전략

제2주제 '지금 공영방송에게 OTT는 무엇인가'의 발제를 맡은 정준희 중앙대 겸임교수는 '독자'와 '연대'라는 OTT 전략의 딜레마 속에 영국 제2공영방송인 채널4의 사례를 소개했다. 채널4는 'All4'라는 독자적 OTT 서비스를 통해 16-34세를 주요타겟으로 수익성 높은 포맷과 젊은 콘텐츠, 타깃형 광고에 집중하는 한편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에도 적극적이다. 결국 공영방송의 다중 OTT 전략은 독자 플랫폼에서부터 연합, 전략적 제휴까지 다중적이며 이를 어떻게 선택하고 이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OTT(Over The Top) 서비스란?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유료방송 등을 일컬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서비스를 통칭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방송학회(회장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11월 10일(토) 전남대에서 열린 2018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KBS 후원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적합한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 콘텐츠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OTT 전략을 제언하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2개 주제의 발제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필모 부사장은 "플랫폼 전쟁 시대에 KBS 단독으로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외부 OTT 플랫폼에 우리 콘텐츠를 개방하는 문제는 전향적으로 고민 중이다. 우리 다수를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방송이니까. 한편에서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수많은 요구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데, 공영방송은 일정 부분 비효율을 감내하고 지켜야할 우리만의 역할이 있다.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학계의 공론화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 · N · T · E · R · V · I · E · W

장애 18년, 은퇴작 연출 마친 김영진 PD

은퇴작 연출 마친 김영진 PD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은 서툴렀던 엄마와 딸. 두 모녀의 '화해'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그린 KBS 단막극 <드라마스페셜 : 엄마의 세 번째 결혼식>이 11월 2일 전파를 탔다. 연출을 맡은 건 김영진 PD. 30여 년 드라마 PD로서의 마지막 은퇴작이었다. 1990년대 말, 최수종, 채시라, 유동근이 출연한 2TV 주말극 <야망의 전설>을 연출해 5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그였다. 뜻밖의 큰 성공. 하지만 이듬해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다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불행. 하지만 드라마 연출에 대한 열정만큼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김영진 PD를 사보가 만났다.

“1987년 KBS 드라마 PD로 입사한 김영진 PD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다. 입사 11년 차인 2000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고 2010년 재기작을 연출하기 전까지 드라마를 다시 만든다는 건 그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과도 같은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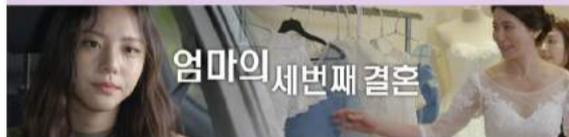


장애도 드라마 연출에 대한 열정을 꺾진 못했다.
갑작스러운 사고 후 병원에서 장애인들과 지낼 때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느낌이 없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장애인들이었으니까... 하지만 퇴원하고 나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장애를 가진 내게 처음에는 일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연출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2010년 재기작 <고마워 웃게 해줘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휴스턴 국제 영화제 TV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솔직히 현장에서 촬영할 때 항상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그럴겠지만 일을 할 때 가끔 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작현장의 스태프들의 도움이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영상을 현장 스태프들이 표현해줬고,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좋은 작품들은 내 인복에서 나왔다.(웃음)



장애도
드라마 연출에 대한
나의 열정을 꺾진 못했다.
-김영진 PD-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감동'을 줄 수 있다.
30여 년 드라마 PD로 지내면서 PD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건 '사람'이다. 드라마는 사람이 사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사람에 대한 본성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서 드라마를 만들면 '가짜'가 나온다. 그런 '가짜'는 절대 감동을 줄 수 없다. 사람에 대한 본성을 알아야 사람을 이해하는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나올 수 있다. 또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도 중요하다. 1998년 시청률 50%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야망의 전설>을 연출했을 때 배우 최수종 씨



와 같이 작업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다. '이 장면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살리면 좋겠다'라며 서로 의견을 나누며 찍었는데 오차가 없었다. 연출자의 의도를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정말 잘 받아줬다. 기억에 남는 것은 최수종 씨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찍을 당시였다. 촬영 장소까지 가려면 고무보트를 타고 가야 했다. 그런데 당시 내가 발목부상으로 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배우와 스태프들이 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줬다.

KBS가 정체성을 되찾고 후배들이 패기 있게 이끌어야...

나의 장애는 내 스스로가 이전과 다르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내 몸도 편치 않다 보니 사람들이 가진 작은 아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더 수월해졌다. 그들은 내게 쉽게 마음을 열어줬다. 앞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 이런 것이 KBS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일 말이다. tvN은 재밌는 방송, JTBC는 보도가 강한 방송 등 저마다의 정체성이 있는데 KBS는 지금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 나는 KBS가 정체성을 되찾으려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로 <보통사람들>,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등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프로그램들을 다시 만들면 좋겠다. KBS 드라마가 위기라고 하지만 오랜 역사와 저력이 있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후배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아주 많다. 젊은 친구들이 그들만의 패기와 자부심을 갖고 KBS 드라마를 잘 이끌어갈 것 같다.

신성일 카메라 감독 내/가/기/억/하/는/김/영/진/P/D

“휠체어 탄 드라마 연출자가 상상되세요?”
신성일 카메라 감독은 김영진 PD와 세 작품을 같이 했다. 첫 만남은 2013년 <우리 반창고>를 제작할 때였다. 그는 '당시만 해도 휠체어를 탄 드라마 연출자를 상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김 PD의 은퇴작 <엄마의 세 번째 결혼식>도 함께했다. 그리고 그는 '휠체어로도 움직이기 쉽지 않은 촬영장에서 지팡이를 짚고 현장 지휘를 하는 그의 모습은 피곤함에 느슨해 지려던 스태프들을 낮 뜨겁게 했다'라고 말을 전했다.

‘서로에 대한 배려’로 ‘사람 냄새’ 나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
김영진 PD와 함께 일했던 것은 내게 큰 배움이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드라마 촬영 현장은 담당자 간 의견 충돌이 잦아 서로 감정상 상처 입히는 상황이 많은 거친 곳이다. 돈과 시간의 논리가 우선인 이곳에서 김영진 PD는 '서로에 대한 배려'로 힘들고 치열한 드라마 촬영 현장을 항상 '사람 냄새'가 나는 장소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김영진 선배와 다시 뭉쳐 일할 수 있기를...
퇴직 후 김영진 선배가 혹시 드라마 연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 촬영을 맡고 싶다. 이번 단막극 <엄마의 세 번째 결혼식>이 그의 은퇴작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많이 소개가 됐는데, 그를 오랜 시간 알아온 나는 그의 '드라마 제작에 대한 열정'이 아직 식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웃음) 김영진 선배 퇴직 후에도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다시 한 번 뭉쳐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뜻깊은 일이 될 것 같다.

KBS-NHK 방송협력회의·수신료협의회 잇따라 열려

한·일 양국 대표 공영방송 간의 이해와 협력의 장을 모색하는 '제38차 KBS-NHK 방송협력회의'가 KBS 주최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다. KBS와 NHK는 이번 방송협력회의를 통해 총 32건의 안건을 내고 국제교류 분과, 제작 보도 분과, 기술 뉴미디어 분과 등 분야별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4K/8K UHD 제작 협력, 한일 프로그램 공동제작, 공동기획 문화사업, 재난방송 관련 교류협력 등 양사의 관심사항이 밀도있게 논의됐다.



KBS와 NHK는 올해 협정한 사항을 바탕으로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송협력회의는 양사가 1968년 7월 일본 도쿄에서 '한·일 방송전문가회의'라는 이름으로 첫 회의를 가진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방송협력 50주년 기념식수, 도자기 교환, KBS UHD 시설 및 남산송신센터 방문 등 뜻깊은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제10회 KBS-NHK 수신료협의회도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에서 개최됐다. 수신료협의회는 양사 간 수신료제도 정보 교류와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수신료 담당 임원(KBS 시청자본부장, NHK 영업이사)을 대표로 하여 지난 2000년 처음 개최된 이후 이번에 10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창의적 실험 공간, KBS 쿠킹 스튜디오 오픈

음식을 매개로 한 소통과 공감, 콘텐츠 실험이라는 키워드로 10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해온 KBS 쿠킹 스튜디오가 12월 3일 누리동 2층에 공식 문을 연다. 직원뿐만 아니라 KBS를 찾는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KBS 쿠킹 스튜디오는 프로그램 촬영, 기자간담회, 제작발표회를 비롯해 외부 대관, 식음료 판매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오픈 기념 유료행사로 미슐랭 셰프들이 직접 요리하는 '더 굿쉐프' 행사가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열리며, 대관 비용은 업무 목적일 경우 시간당 5만 원이다.



KBS 쿠킹 스튜디오 대관 문의: 02-761-0901

KBS, 한반도 평화시대 캠페인 열어



마케팅전략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나누고 KBS가 한반도 평화시대 대표방송임을 알릴 수 있도록 컵 홀더를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KBS는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국제청, 한국정책방송원, 종합안내동) 등 정부청사 입점 카페 10곳에 3만 개와 KBS 본관, 신관 티타임 등에 2만 개를 배포했다. 향후 컵 홀더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에도 적극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의 PD상·이달의 방송기자상·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상	부문	작품명	수상자
이달의 PD상	TV 교양·정보	KBS 서울올림픽 30주년 특집 다큐 <88/18>	이태웅 PD, 민혜경 작가
	TV 예능·드라마	KBS 드라마스페셜 2018 <잊혀진 계절>	김민태 PD, 허국희 감독, 김성준 작가
	라디오 음악·오락	KBS 악동뮤지션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 <100일 맞이 특집 2018 Volume Week>	정혜진·강소연 PD, 김희진·류민아 작가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 뉴스	<강원 수출 플랫폼, 그 화려한 허상>	박상용·최진호 기자 (KBS 강릉)
	지역 기획보도	여순사건 70년 특별기획 <낙인>	양창희·박석수 기자 (KBS 순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최우수상	제주어 미니시리즈 <어머의 바당> 12부작	KBS 제주
	지상파 TV	추석 특집극 <옥란면옥>	KBS 본사
	지상파 라디오	추석 특집 <구룡포 시가 되다> 2부작	KBS 포항

KBS 행복한 결혼식, 2018 김장나눔 대축제 등 사회공헌 행사 가득



시청자서비스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행사를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11월 4일 신관 공개홀에서 다문화·북한이탈주민·소외계층 가정 등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 50쌍을 선정해 김상근 KBS 이사장 주례로 제10회 'KBS 행복한 결혼식'이 열렸다. 또 11월 16일과 17일에는 KBS 홀 광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2018 KBS 김장나눔 대축제'를 열었다. KBS 임직원을 포함해 KBS 텔런트 극회 봉사단, 개그콘서트 출연진, KBS 재능나눔봉사단 등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김장김치 1만 포기, 총 28,000kg을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도 계획 중이다. 시청자서비스부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행사와 방송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천하고 역할에 더욱 충실할 계획이다.



KBS1 저녁일일극

비켜라 운명야

로또보다 더 센 인생역전 드라마 <비켜라 운명야>

알고 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회장님!? 평범하게 살다 하루아침에 대기업 후계 전쟁에 말려든 시골 청년의 유래, 상괘, 통쾌한 운명 개척기가 펼쳐진다. 지난 5일 시작한 1TV 새 일일드라마 <비켜라 운명야>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열정 100%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다. 각종 고장 수리부터 칠순잔치 MC까지 소화 가능한 동네 스타로, 온 마을에 해피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양남진(박윤재 분).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겪은 뒤 하루아침에 뒤바뀐 운명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는 양남진과 주변 인물들의 가슴 뛰는 운명 개척기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예고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4인 4색 운명 개척 로맨스

기존 일일극과 차별화된 관전 포인트는 첫 회부터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지는 쾌속 전개다. 열정과 젊은 패기로 톨툴 뭉친 캐릭터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역경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시골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다 하루아침에 현강그룹의 손자가 된 초공정 마인드 소유자 양남진, 아버지가 정해준 삶을 거부하고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주체적인 길을 선택한 부잣집 외동딸 한승주(서효림 분), 패션업계 최고 엘리트이자 냉철한 카리스마로 주변을 압도하는 현강그룹의 기획사 최시우(강태성 분), 패션 업계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펼치기도 전 가난에 발목 잡힌 정진아(진예솔 분) 4인의 티격태격 찰떡 케미와 예측불가 로맨스.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사건들에 네 사람이 어떻게 맞서 나갈지 주목된다. 여기에 남일우, 홍요섭, 강신일, 조덕현 등 베테랑 조연과 명품 중견배우들의 깨알 웃음과 반전 활약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첫 주 평균 17%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국민 드라마 탄생을 예고한 <비켜라 운명야>는 <빛나라 은수>, <빠꾸기 동지>, <오! 할매> 등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광기원 PD와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을 집필한 박계형 작가가 의기투합하여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매주 월~금요일 저녁 8시 25분, 1TV